

주머니는 가볍게, 공연은 명품으로

1만원 미만의 상설공연 계획 ... 지역문화재단 '시동'

송지현 기자 songji@kurotimes.com

구로문화재단이 2009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품격 문화예술공연과 저렴한 상설공연으로 양 날개를 펼친다.

◆ 가격·형식, 대중적 접근성 강화 지난해 구로아트밸리에술극장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무대에 올렸던 구로문화재단이 올해는 지역극장으로서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테마가 있는 상설공연.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공연이 펼쳐진다'는 모토를 내걸고 전통음악,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이 알 만큼 유명하지는 않아도 실력을 갖춘 전문공연단을 중심으로 무대를 마련하게 된다.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1만원 미만 공연으로 매주 특요일 또는 한두 달 기간을 정해 특정 장르를 충분히 감상하는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 또 해설자를 통해 내용적으로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깊이 있는 감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능하면 많은 구로주민들과 인근 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연 시간대, 가격 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귀띔했다.

구로문화재단 측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연장으로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저렴한 상설공연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 명품 공연으로 주민 자랑거리 한 축으로는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진다. 이른바 '명품 공연'을 통해 예술의 전당 등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기획과 초창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고의 공연장으로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백건우, 자꼬 루시에, 유키 구라모토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연주가들이 벌써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 다문화 주제로 교육연극 준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전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극장공연을 이용해 해설이 있는 공연 등도 계속 이어간다.



▲ 양한 장르 공연으로 풍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구로문화재단. 사진은 지난 2009년도 신년음악회.

올해에는 특히 교육연극을 제작해 순회할 계획도 조심스럽게 세우고 있다. 구로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소재로 한 연극을 만들어 학교와 어린이집을 돌면서 새로운 문화지만 함께 해야 할 문화로서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문화재단으로서 본격 시동 걸기에 나서야 하는 세살배기 구로문화재단의 실속있는 날개짓을 기대해본다.

◆ 이 기사는 2009년 2월 16일자 28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09년 02월 18일
[송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